

주안에 News InChr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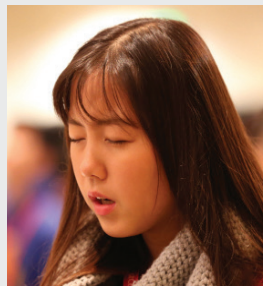
주 . 안 . 에 . 교 . 회 . 뉴 . 스 . 레 . 터 .



12
Dec. 2016
Vol.4 No.12

- 사역국장들 새해소망
- 은퇴감사예배
- 성탄감사주일
- 교육부 / 간증 / 화보

주안에교회 InChrist Community Church ph. 818.363.5887 | 문서국 e-mail: icccnews123@gmail.com | web: in-christcc.org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110여명의 주안에교회 차세대 자녀들과 EM 성도들이 참가한 3박4일간의 힐링캠프가 열렸다.
벗어놓은 신발이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느끼게 한다.

지난 12월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주안에교회 제 1기 EM 힐링캠프가 The Oaks Retreat Center 에서 열렸다.

7학년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66명의 남자와 46명의 여자, 총 112명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씨커스들이 참여하여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알 수 있었다.

몇달동안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해 온 EM 힐링캠프, 드디어 12월 26일

■ EM 힐링캠프

(월) 새벽 7시, 찬 공기를 가르고 플러튼과 LA 그리고 벨리 등 세 개 채플에서 모여들기 시작한 서포터즈들은 우리의 EM 아이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기대 반, 긴장 반의 표정이 역력했다.

권사회에서 준비한 아침을 맛있게 먹고 8시 30분, 박헌동 목사님의 기도로 드디어 출발, 현장에는 한시간만인 9시 30분경에 도착. 벌써 일부 셋업팀 여러분이 먼저 와서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현장은 산속이라 열음이 없고, 입가에서는 찬 입김이 나왔지만 누구도 잠시 쉴 틈 없이 분주히 움직였다. <6면에 계속>

| 채은영 기자 / 사진: 남성우, 양영 집사 |

■ 리더뱅크

웃음과 격려 속 받은 은혜 함께 나누고...



지난 12월 3일 오후 5시 밸리채플에서 2016년 리더뱅크가 있었다. 여느해와 같이 교역자분들의 서빙과 사모님들의 음식솜씨까지 어우러져 멀리 앨바인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한 리더들을 맞이하였다.

플러튼 채플의 김종성 예배국장의 간증을 시작으로 통역팀 마희연 국장, LA채플의 김민재 자매, 플러튼채플의 임훈 선교사, 봉사부의 이계순 권사와 교구장 대표 나형철 장로 등의 간증이 이어졌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그저 들어주는 수준을 넘어 나누는 분들이나 그 나눔을 듣고 있는 모든 참석자들은 이심전심 전해지는 마음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함께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기쁘게 섬기면서 느끼게 된 주님의 손길은 절로 감사의 기도를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나누는 자의 마음이 내게 한아름 전해져 마음을 따뜻하고 잔잔한 공감을 퍼뜨리더니 나도 모르게 붉어진 눈시울을 서로 모르는 척 넘겨 주었다.

간증과 간증 사이 어찌면 목직하게 내려앉은 분위기를 한껏 올려주던 순서로 올해 처음 등장한 “난 누구까요?”...누구일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은 아주 아주 꼬꼬마들의 사진을 보며 이미 눈가의 주름이 낮설지 않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찾아내는 퀴즈시간은 졸전에 눈시울이 촉촉하긴 했나 싶게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었다. 교회 교역자를 포함한 리더들의 아주 어릴적 사진을 보며 지금의 모습을 어렵게 겹쳐내며 서로를 알아가는 재미는 생각보다 즐거운 웃음을 멈추지 않게 하였다.

강솔로몬, 김유진, 성이삭, 이규화, 이니콜,

이성우, 이요셉 등의 교육부 교역자분들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귀여운 울동과 찬양은 리더들을 행복하게 하였고 찬양과 울동을 하는 전도사분들은 얼굴이 빨그레 상기되었겠다 싶었다. 주안예교회 행사에 빠지면 섭섭하게 되어 버린 정경화 집사의 “그리운 금강산”은 두고 온 조국의 시류를 생각나게 해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음 날 있을 12월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리더들은 맡은 바 제자리를 또 아무렇지 않게 지켜내자 하며 먼길을 서둘러 돌아갔다. 아무 것도 아닐지 모르는 이 리더뱅크를 통해 그자리에 초대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내가 진정한 리더로써 지난해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성숙해지길 기도한다.

| 채은영 기자 |

외로운 어르신들 찾아 따뜻한 위로

■ 양로원 심방

12월 6일(화)과 12월 15일(목) 이틀간에 걸쳐 노스리지 소재, 엘에이 부근에 있는 양로원을 방문했다.

이미란 전도사와 이재조 전도사, 그리고 권사, 집사들이 모여 어르신들께 드릴 작은 선물을 준비해 가서 찬양과 크리스마스캐롤을 함께 부르고 이재조 전도사의 영어설교로 짧은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집과 가족을 떠나 오랜 세월 그곳에서 계시던 분들은 마치 본인의 가족인것처럼 우리를 반가이 맞아주시고 작은 선물에 감동과 함께 부르는 캐롤속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였다.

우리의 앞으로 15년 내지 20년 후의 모습일



거다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모두의 공통된 생각을 갖게 했다.

사는 날 동안 주어진 삶 열심히 살고 할 수

있는데로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함을 절실하게 느끼며 돌아왔다.

| 오병순 기자 |

70평생 달려온 권사 집사님들께 ‘축하의 꽃다발’

■ 은퇴감사예배

지난 2016년 12월 2일(금요일) 밸리채플 영성 집회시간에 은퇴감사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일곱분의 권사(김영애A, 김정자B, 유진희, 이순자, 전은순, 주정희, 이예스터A)와 두분의 안수집사(정연식, 송용희) 총 아홉분과 함께 은퇴예배를 드리니, 막상 은퇴를 하려니까 서운함과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생활속에서 본업과 부업이 바뀔정도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며 섬겼던 권사, 집사생활의 추억이 남게하심을 감사하고, 또 작은 봉사가 기쁨으로 이루어질 때 큰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게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플러튼 권사회장으로 섬기신 이예스터권사의 은퇴간증과 최혁 담임목사의 말씀에 이어 세계 채플에서 정성어린 꽃다발을 준비해 모이신 후배 집사, 권사님들의 꽃다발 증정 그리고 영원히 기록에 남을 사진촬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뒤를 돌아보면 회로애락속에서 후회하게 되지만, 주 안에서 어려웠던 시간까지



도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삶은 분명히 주님을 닮은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55세가 되면 조기은퇴로 명퇴시키는데, 우리 교회는 70세로 은퇴한 후에도 드림(Dream)구역으로 시작하여 새로운 꿈을 꾸며 시작하게 하십니다. 100세 시대에 살고 있는 드림구역 식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복중에 큰 복이지요.

바라기는 영육간에 강건함과 평강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선후배와 교우들 사이에

서 겸손을 배우고, 지난날에 훈련된 경험으로 앞날을 꿈꾸며 더 넓은 세상을 향하여 지경을 넓히며, 두손을 펴서 모든것 드릴 수 있는 삶을 살며 남은 여생동안 맡겨진 기도의 분량을 채우며 또한 무릎신앙인으로 본을 보이고 또 한세대를 과감하게 매듭짓는 역할을 감당하는 Dream Team으로 새롭게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은퇴하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동행하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 김신실 기자 |

토요일 아침 함께 모여 뜨거운 ‘One Voice’ 간구

■ LA채플 중보기도모임

지난 12월 10일(토) 아침 6시부터 LA채플에서 중보기도모임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LA채플에서는 다른 채플과 달리 토요 새벽기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토요 중보기도모임이 새로 시작되어 토요일 새벽기도를 하지 못하여 아쉬웠던 LA지역 성도님들에게 단비와도 같은 기쁨의 시간이 되었다.

서정아 전도사의 기도와 찬송가 19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중보기도회는 시작되었고, 교회와 사역자들 그리고 교육부, EM 힐링캠프를 위해 차례로 기도했다. 서정아 전도사는 기도하는 우리의 음성인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시편 37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원하며 각자 기도수첩을 만드시라고 조언하였다.

이어진 기도으로 청년부와 2017년도 교회 리더들, 해외 선교사님들과 북한및 이슬람권의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드렸다. 또한 건강이 좋지 않은 4명의 성도님들이 속히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와 같이 예배드리



며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하였다. 함께 중보기도회에 참여한 성도님들 각자의 기도제목을 받고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제 2016년을 몇 주 남기고 시작된 LA채플 토요중보기도모임이 20여명의 적은 숫자로 시작되었으나, 그 기도의 소리와 간절함은 어느교회의 200명 아니 2000명보다 뜨겁고 힘이 있는 기도였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실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매주 토요일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이어지는 LA토요중보기도모임에 LA지역에 거주하시는 더욱 많은 성도님들께서 적극 참여하시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시기를 성령의 이름으로 요청드립니다.

처음 토요중보기도모임에 참여한 성도님들은 더욱 집중하여 많은 기도를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 한 성도님이 정성껏 준비한 간식을 맛있게 나누고 9시가 되어서야 각자 집과 일터로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땅에 오신 예수님 ‘그 사랑’ 찬양

■ 성탄감사주일(플러튼채플)

올해 주안에교회의 성탄절은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구요? 그것은 주안에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에 따라 세워지고 3년 째 맞는 성탄절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3년간 주안에교회는 교회 내외로부터 혹독한 시험과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올해 세 번 째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성탄절은 각별한 의미가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도 큰 잔치를 열기보다는 조용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정성껏 준비한 소박한 음식을 나누며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입니다. 온 교우가 일어나 찬양팀과 함께 우리를 구하시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기쁨입니다.

꼬마들은 Happy Birthday, Jesus를 노래하며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Jesus loves me,



this I know.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 차별 없고,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그래서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뻐합니다. Joy to the world, the Lord has come. 하늘과 땅이 마음을 열어 주님 오심을 함께 환영하고 찬송합니다.

성가대는 지난 몇 달 간 준비한 찬양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사랑’이란 제목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의미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이질감을 극복하는 사랑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서 속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뇌종양 치료로 머리카락이 모두 빠진 브라이언이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급우들이 모두 머리를 깎고 등교한 브라이언을 환영한 사랑이 바로 그 사랑입니다.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남을 꺾어내리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죄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생축으로 오셔서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랑입니다.

예배 뒤에는 교우들이 삼삼오오 모여 사랑의 애찬을 나누며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했습니다.

| 조성운 기자 |

예쁜 마음으로 함께 “Happy Birthday to Jesus!”



■ 성탄절 뱅킷

25일 성탄절 아기 예수님이 이땅에 오신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대예배 시간에 IC KIDZ 아이들은 찬양을, 어여쁜 율동과 함께 드렸다. 흰색 셔츠와 어울리는 빨간색 나비넥타이를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엿볼 수 있었다.

대 예배의 찬양이 끝나고 아이들은 바블 퀴즈를 통하여 그들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면서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시간을 가졌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진 우열다툼에서 우승한 아이들은 푸짐한 상품까지 가져갈 수 있었다.

한편 ICY에서는 크리스마스 뱅킷을 열어 멋지게 차려입고 맛난 음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한껏 즐겼다. 포토 부스도 만들어 기념사진을 찍었고 게임도 하며 서로의 소중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

| 박희정 기자 |





하나님의 말씀 · 성령의 역사, 세대의 벽을 넘어...

〈1면서 계속〉 모두 16개팀 90여명의 풀 타임 봉사자들과 하루 또는 이틀간 파트타임으로 올라온 봉사자들과 100여명의 귀한 손길이 헛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특히 자녀를 이번 EM 힐링캠프에 올려 보내고 자신은 써포터즈로 함께하신 여러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몸으로 부딪치고 어른들의 시선에서 조금 벗어난 현실이 당연했던 우리들의 아이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른들의 배려와 섬김에 당혹스러울 정도였다고 말했다. 1세대 위주의 교회 활동에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건 아닌지 불안감에 빠지는 듯 했던 일상에서 이번 힐링캠프가 잠들어가는 영혼을 깨웠다고 간증하는 영어권 청년도 설레이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고 아내의 신앙생활을 위해 본인의 문화권을 벗어나 이방인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던 아내사랑 1등의 크리스 집사는 물 만난 고기처럼 영혼도 육신도 신바람이 나서 춤을 추었다고 한다.

첫 날, 예상하지 못한 트래픽으로 예정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도착한 우리 자녀들은 다소 긴장하고 지친 듯 보였으나, 둘째 날이 되자 벌써 표정부터 변하기 시작하여 셋째 날에는 거의 모두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전하고 싶은 마음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모든 마음을 던졌던 최혁목사와 그 목사님의 열정 어린 말씀을 행여라도 땅에 떨어뜨릴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

로 헌신했던 마히연 집사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성이삭 전도사의 통역은 아이들의 귀와 마음조차 열어서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많은 학생들이 번역기를 쓰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들의 이해를 돕고자 쉽게 말씀을 전하시는 최혁 목사님의 배려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전달하려던 통역 사역자들의 마음이 통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수련회 때마다 학생들을 지도하느라 본인들의 영혼을 챙길 겨를이 없었던 많은 중 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는 EM 청년들은 이때를 놓칠새라 마음껏 성령의 바다에서 헤엄치듯 하나님의 은혜에 온몸을 맡기며 몸과 마음을 적셨고 학생과 선생이 아닌 주안에 한 형제요 자매로 만나 서로가 그리 많이 다르지 않았다는 것, 어쩌면 너무나 비슷한 문제로 아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모든 참가자들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산을 내려올 때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기에 충분한 치유함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년 힐링캠프와 달리 참가자들이 내 아이들이어서 느껴지는 특별함 때문에 그들의 아픔, 순전함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의 헌신에 봉사자들은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나이 어린 참가자들의 깊은 신앙심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마지막 날 두 대의 버스에 나누어 타고 내려온 112명의 써커스들은, 미리 와 있던 써포터즈들과 부모님들의 환영을 받으며 밝은 표정

으로 벨리채플 본당에 모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 드렸다. 마지막 순서로 파송식을 하며 최혁 담임목사님으로부터 십자가 목걸이를 받고, 모든 시커스들과 써포터즈들이 서로를 위해 허그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확인했다. 권사님들께서 정성껏 준비해 주신 점심을 맛있게 먹고, 우리 모두는 올라갈 때와는 아주 다른 세상을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특별히 연말에 여러가지 일로 매우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 EM 힐링캠프를 돕기 위해 올라온 100여명의 써포터즈들은, 열음이 어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부터 안내를 서는 등, 그 열정으로 인해 추운 줄 모르고 뛰고 달렸다. 각각 맡은 팀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써포터즈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서는 하루 5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한 표정은 간데 없고 오히려 부족한 자리를 돕기 위해 다른 부서의 요청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처음 써포터즈로 참여하신 몇몇 집사님들은 이렇게 귀한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보통, 참가자들과 봉사자들의 비율이 1:2 정도는 되어야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었지만 EM 힐링캠프가 처음 치러지는 연고로 봉사자와 참가자의 비율이 역전됐던 이번 힐링캠프의 성공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라 시인할 수 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우리 모두 두 손 높이 올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능력을 올려드리며 아직 계획하지 못한 2기 EM 힐링캠프를 기대해 본다.



성도들의 기도 · 서포터즈들의 손길 ‘풍성한 열매’





Trusting in God

Matthew Han(LA, 9th)

I was in a really weird situation before Healing Camp. My relationship with God was really on and off. I was really inconsistent with not coming and coming to church.

Like often times I would just be really lazy to come out to Thursday services. I was in really good spirit when LA church moved to Normandie. I was really feeling so happy with God. After a couple months after things for bad. I was skipping church for a lot of dumb reasons. What I learned from this Healing Camp is that all I need to do is trust God and live by his ways. Just keep on praying he is listening to every prayer. I think after I go back to LA it will be fun. I think I learned how to treat people correctly and how to live life. I just need to believe in whatever God has in plan for me. I know that living with a spiritual high isn't an easy task but I think I am confident enough to do that. God has been so great to me during healing Camp. I felt like literally he was next to me and I can put my arms around him. I felt like my prayers were all heard and I am really thankful for that.



Transforming my Heart

Celeste Kim(Fullerton, 8th)

Before I came to Healing Camp, honestly had no heart to come. I thought that "Healing Camp" sounded so mature and "grown-up" and I used that as an excuse. I

would try to persuade my mom to think about my perspective but like always, persuading mothers never really works out. So there I was packing for Healing Camp, wanting it to be a retreat and having no excitement for the upcoming day. My heart was calloused and numb because of my school and I wasn't ready to face God. But as we were praying, I realised that I was so lucky to be able to come to Healing Camp at such a young age. My dad went to the previous Healing Camp and he's like 20, 30, 35? years older than me. But here I was, 13 and in the same situation my dad was in at age... old. I was so realised that God gave me the ability to pray more easily than ever I felt. The words would just pour out as I was pouring out my heart to Him. And then I realized how broken I really was. Swayed by the world, emotional, and delicate. But even through all of these, God was still by my side. Instead of being the pessimistic person I was before, Healing Camp



proved me wrong and transformed me into a whole new different person. A person who was able to love others, care about her friends, and was able to love others, care about her friends, and was able to bear with her younger sister. And the funny thing is, I asked God to give me a loving and compassionate heart like his.



Hearing God's Voice in the Word

Seobin Yun (Valley, 9th)

Before, I knew Jesus died for me at the cross. I've heard that so many times. I knew he did. But, it was first time realizing that He really did. When we wrote about our sins and nailed them on the cross, I really realized that He did. I finally realized that Jesus died for ME. Usually when we praise God, I sing the song without really knowing the lyrics; without knowing what lyrics are talking about. But, after realizing what Jesus did for us, after realizing that I can't really do anything by myself, I put my heart into the lyrics. Healing camp really helped me meet God. It made my relationship between God stronger. Whenever I go through hard situations, I prayed to God. But I didn't know how God will talk to me. People say they have met Jesus, and God before. So I thought you will meet God through your dream. But I realized that God talks to us through His Word like Pastor Choi said. And I greatly realized that God has been talking to me for my entire life. So I really thank God for bringing me here to the healing camp. I love you God!



Experiencing God's Love

Chris McGee (Valley, EM)

Before healing camp, I had no expectations. I knew I have been emotionally dull and not feeling God working so strongly in my life. The morning of the first day of camp, I woke up with sharp and debilitating back pain. I had a sinking feeling I was going to have to endure pain the whole trip. But by God's grace by the afternoon my back pain was gone and only a memory. This jump started my camp experience with a physical feeling of God's love. During the following days I could feel God chipping away slowly at my emotional walls and allowing me to feel joy and happiness by growing closer to Him. It reached the pinnacle when on the morning of the last day, I read a line in a letter I received with a simple sentence that shot through me like a bolt of lightning: "You are worth dying for." I truly felt the love of God, Jesus, and the Holy Spirit at that moment. I will treasure it forever and use this experience to continue to grow spiritually and encourage my family and friends to do the same.





■ 2017 사역국장들의 소망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소서



김경일 재정국장 새해에는 교회적으로 좋은 일과 변화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 하실 수 있도록 교회의 재정을 잘 계수하고 필요한 곳에 짜임새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김진식 찬양팀 국장 우리에게 주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많이 더 깊이 찬양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우리 찬양 팀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정도연 체육국장 2017년 새해를 맞으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안예교회는 2016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새해에는 육체적인 건강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선교사역과 성도간에 친목을 잘 감당하는 체육국이 되기를 소원 합니다.



이광영 문서국장 주안예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임을 알리고 문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서국 모든 식구들과 힘을 합쳐 달려가겠습니다.



윤영섭 법무팀국장 맡겨주신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하며 순종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조순욱 의료국장(플러튼) 2017년에는 모두가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많아지는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박창신 의료국장(벨리)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은혜 안에서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이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함없이 의료국을 사랑하여 주시고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순 봉사국장(플러튼) 올해와 같이 내내에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하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작은 섬김이 되겠습니다.



김종승 예배국장(플러튼) 무엇보다도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순서속에 사역국들과 협력하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예배의 모든 부분을 돕는 예배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정미 예배국장(LA) 항상 살아있는 예배가 드러져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충만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준비에 긴장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예소더A 전도국장(플러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당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주신 직분 감당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유종배 주차국장(LA)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사역국이지만 봉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2017년 한해를 멋지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교회의 출입을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결총 새가족국장(플러튼) 2017년 주안에 교회 플러튼채플 새가족국은 주안에서 하나되

어 모두가 한마음으로 새가족을 섬기며 하나님만 바라는 성령 충만한 새가족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박상숙 싱글사역국장(플러튼) 우리 주안에 교회에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시고 출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 또한 공급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열심히 살며 사랑하며 배우기를 다짐해 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임용자 브니엘 국장(벨리) 브니엘은 특별히 질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여 주안예교회 성도들에게 최고의 행복감을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로부터 어르신까지 따뜻한 감성으로 다가 가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춘호 봉사국장(LA) 음식을 다루기에는 열악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2017년에도 맛과 영양을 책임지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김영기 장로(플러튼) 올 한해도 많은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축여가는 영혼들을 위해 일하라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열심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욱 CD사역국장(벨리) 목회부의 목표인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통한 위로와 격려로 진리이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기쁨을 맛 보기를 소망합니다. 주안예교회 성도님들께서도 2017년 CD 한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 2017 사역국장들의 소망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김항희 경조국장(밸리) 교우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예측할 수 없는 앞날을 준비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이웃사랑으로 순례자의 자세로 사역하고 싶습니다.



김은실 구제사역국 팀장(플러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나의 힘으로 아니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열심으로 환우들을 섬기겠습니다.



유영애 싱글사역국장(LA) 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사역국이라서 조금은 두렵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감당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실거라 믿습니다. 싱글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용수 전도국장(밸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전도국이 되겠습니다.



한중현 주차국장(플러튼)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안예교회에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항상 순종하는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김경배 주안예 라이프국장(밸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저희들보다 더 많이 수고 하였던 믿음의 선배님들을 주안예 라이프에서 섬기며, 교회의 뜻을 따라 잘 섬기겠습니다.



박만규 기도국장(플러튼)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최미정 새가족국장(LA) 2016 년은 참으로 바쁘면서도 보람된 한 해였음을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오시는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져 갈 수 있는 2017 년을 다짐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홍영교 교육1국장(밸리)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명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히려 내내 기억하며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육국에 관심을 갖고 직접 참여하시도록 부탁드리며 다니는 2017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공태용 교육 2국장(밸리) 2017년에는 youth Group 의 자녀들이 깊고 넓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EM 부흥의 기틀을 다져나가는 해가 되겠습니다.



김국호 교육1국장(플러튼) 미래의 주님의 일꾼들을 키우는 교육국을 맡아 섬기기에 너무도 부족한 사람인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교사들과 하나가되어 어린이들의 영적성장과 즐겁고 안전한 교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래 교육2국장(플러튼) 부족한 중에게 2세들을 위한 소중한 사역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주안예 교회의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백진예 예배국장(밸리) 부족한 저희들에게 예배국을 통해 교회와 성도님들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특별한 섭리가 있으시리라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배국은 성도님들이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

려드릴 수 있도록 돕는 자리이므로 오로지 예배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국의 자막팀, 촬영팀, 찬양팀, 조영팀, 음향팀과 잘 협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는데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함께 예배국을 이끌어갈 성실하시고 믿음 좋은 팀장 이원근 집사님을 비롯하여 조용히 맡으신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우리 예배국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서 든든하고 힘입니다. 저희 예배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황동성 경조국장(플러튼) 주안예교회 성도님들의 경조사를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수 봉사팀장(밸리) 주안예 봉사국은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솔선수범으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주안예 봉사국은 한 달에 한 번씩 맛있는 음식으로 성도님들을 대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재오 건물시설관리국장(플러튼) 능력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방길 한어청년부 담당장로/ 새가족국장(밸리) 소명과 비전을 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젊은이 공동체인 주안예교회 한어청년부는 주안예교회의 자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되며 주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 한어청년부가 되도록 뒤에서 밀어주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저희 새가족국은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년을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더욱 부흥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너무나 행복해서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며 달려오는 주안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좋은 교회 좋은 영적 리더와의 만남의 축복

지금까지 지키시고 신령한 복으로 나를 인도하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을 유산으로 받고, 평생에 인도하셨고 보호하시며, 지켜주셨고 복 내려주신 나의 아버지께 간증문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좋은 만남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좋은 책(성경)과의 만남, 영적 리더를 만남, 좋은 멘토와의 만남, 좋은 목회자와, 교회와 성도와의 만남은 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은퇴를 하면서, 주안에 교회를 섬기며 받은 은혜가 넘쳐서 감사했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에 주일마다 푸른 초장과 생수의 강가에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성령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안에서 받은 것을 받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

힐링캠프 1기로 산장에 올라 최혁 목사님의 풍성한 꿀을 먹고 생수의 강가에서 누리게 하



전은순 권사(벨리)

시고 목사님의 목회 방향과 함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궤도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기억에 남는 일은 멕시코 까말루에 여름 단기 선교에서 섬겼던 일은 참 좋은 경험이었고 보람있는 섬김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환하게 웃는 아이들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신발도 없는 아이들, 물이 귀하기에 얼굴도 여러날 씻지 못한 모습, 머리를 감을 줄 모르는 아이들, 가난하기에 그저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어렸을 때의 나의 모습이 생각나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손과 얼굴을 닦아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물장난도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풍성히 받은 자로서 지극히 작은 몸짓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행하게 하여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눈빛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꿈과 비전과 열매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5년, 10년, 20년 후에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삶을 통하여 향기롭고 선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은퇴 이후의 사역은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년에는 한국에 가서, 기간은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독거 노인이나 소년 소녀 가정을 섬기고 싶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섬기고 싶은 것이 제 꿈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 중에서 이웃을 향하여 손을 펴서 함께 섬기며 사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거룩한 사명감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순종하므로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또한 나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오라하실 때까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려합니다. 건강 주시는 날까지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70년동안 함께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지난 70년 동안 참으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건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것만으로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를 드리는 것은 세계비전교회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주안교교회와 합병을 하고 최혁 목사님의 한차원 높은 설교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토대로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지금은 오직 오늘도 복된 하루를 주신 주님께 감사한 생활을 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권사회 주관으로 토요일 새벽예배 후 아침간식시간에 권사

님 한분 한분이 자기순서를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감사했고 또 새벽예배를 마치고 뜨거운 커피와 샌드위치를 드시면서 하시는 성도의 교제를 보며 작은 섬김이 이렇게 큰 보람을 느끼게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은퇴란 단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벌써 은퇴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00세 시대인 만큼 건강관리도 열심히 하



김정자 권사(벨리)

고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취미생활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아직도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전도, 봉사 생활을 하면서 하루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저는 이 말씀을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매일 매일 살아야 할 삶의 연속이고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삶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 왔건만 마음이 이렇게 편한 것은 주님이 늘 나와 함께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 알림: 이달의 요리는 지면 관계상 생략합니다.

예배시간 및 교회 위치 안내

주일
예배

벨리채플/ 1부 오전 8:45, 2부 11:45
LA채플/ 1부 오전 8:45, 2부 10:30
플러튼채플/ 1부 오전 9:00, 2부 11:00

영성
집회

수요영성집회/ 저녁 7:45 플러튼채플
목요코람데오예배/ 저녁 7:15 LA채플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벨리채플

새벽
예배

벨리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LA채플/ 새벽 5:30(월-금)
플러튼채플/ 새벽 5:30(월-금), 6:00(토)

벨리채플 Valley Chapel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LA채플 LA Chapel

3460 Wilshire Blvd, Ste 700, Los Angeles, CA 90010

플러튼채플 Fullerton Chapel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담임목사 설교방송 안내

■ 크리스천 헤럴드TV(CH 18.88

본방송: 매주(화) 7:00pm~7:45pm

재방송: 매주(토) 9:30am~10:15am

■ CTS 기독교TV방송(directv 2092)

본방송: 매주(월) 8:00pm

재방송: 매주(토) 1:00pm

■ 라디오서울(AM 1650) 매주 목 11:00~11:30pm

“주안에” 2017년 1월호 원고 모집

‘주안에’는 교우 모두가 참여하여 만드는 우리교회 뉴스레터입니다. 교구, 구역, 사역팀 소식을 비롯, 간증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고 싶은 글을 많이 보내주세요.

icccnews123@gmail.com

발행처: 주안교교회 문서사역국

문서사역국 명단: 이광영(국장), 김신실, 나형철, 박창신, 박희정, 오병순, 오윤선, 오희경, 조성운, 조용대, 채은영(기자)

안동윤, 양영, 브라이언 조, 정인성, 김다슬(사진) | 편집디자인: 김윤영